

관객 움직임 따라 '실재+가상 그림자 매핑' 교감

문준용, G.MAP 실감콘텐츠전 'Augmented Shadow'

빛의 명암 활용 '별을 쫓는 그림자' 가상세계로 안내 '몰입형' 전시 7월 중순 '작가와의 대화' 진행

문준용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몰입형 체험전시를 위해 광주를 찾는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2023 실감콘텐츠전 '문준용: Augmented Shadow'를 오는 7월30일까지 G.MAP 제4전시실(3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G.MAP의 2023년 첫 실감 콘텐츠전으로, 몰입형 전시공간인 제4전시실 특성에 맞춰 그림자 증강현실과 관람자와 상호작용 가능한 예술 작품을 다룬 문준용 작가가 전시를 연다.

문 작가는 증강현실, Tangible(실감형) 인터페이스, Generative art(창작 예술), 사운드 시각화 등의 실험적 작업을 해왔으며 뉴욕 현대미술관 등 다양한 나라에서 전시를 열었다.

문 작가의 대표작이기도 한 'Augmented Shadow' 연작은 유럽연합집행위의 STARTS상 후보작에 지명된 바 있으며 일본 문화청미디어예술제 우수상을 받았다. 또 대만 가오슝, 중국 샌드박스,



문준용 작 'Augmented Shadow: 별을 쫓는 그림자들'을 오는 7월30일까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제4전시실에서 선보인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부천 등에서 열린 국제 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공개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문준용이 고안해 낸 'Augmented Shadow'의 기술을 이용한 시리즈 중 하나인 '별을 쫓는 그림자'들을 선보임으로써 관람객들을 몰입형 공간 속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의 세계로 안내한다. 문 작가가 기술과 예술을 융합해 실감형 콘텐츠를 만들어 온 결과, 그 완성도가 바로 Augmented Shadow 시리즈라 할 수 있다. 특수 제작한 장치인 트래커

(Tracker)를 통해 관람객의 위치를 감지하고 관객이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물체의 실제 그림자에 가상 그림자를 매핑하는 실험적 예술을 보여준다.

공간 속 명암과 그림자는 관람객이 들고 있는 트래커 속 빛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관객은 가상공간에 들어간 듯한 실재감을 느낀다. 여기저기서 관객을 부르는 그림자들을 관객이 찾아내고, 그림자에게 다가가면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해당 작품은 빛, 그림자, 입체 착시, 몰입환경 등 모든 상호작용의 매개체가 서사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졌다. 관객은 빛을 통해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과 직접 만나고 교감하며, 이를 통해 작품의 완전한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G.MAP 전시장 공간에 맞춰 모델링을 하고 텍스처를 제작해 고품질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게 특별 제작됐다.

기존의 실감형 미디어아트가 지니는 한계를 끊임없이 극복하고 있는 문작가의

인터랙티브 아트는 필수적으로 관람객과 영상작품 사이를 연결하는 디바이스(장치)를 필요로 한다. 디바이스는 우리를 예술 세계로 인도하지만, 동시에 조작이나 작동방법을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가 개발한 작품 속 디바이스인 트래커는 어떠한 조작이나 지시가 필요 없는 장치이다. 그저 관람객이 손에 들고 있기만 하면, 관람객을 빛으로 인식해 그의 작품 세계로 안내한다. 디바이스의 제약을 넘어 자유롭게 예술을 감상하고 향유하길 바라는 그의 인터랙티브 아트의 미래 지향적인 바람이 담겨있다.

또한 단순히 고정된 한 시점에서 움직이는 기존의 인터랙티브 예술과는 달리 문준용의 작품은 관람객의 시점과 위치에 따라 끊임없이 관람객과 교류하는 스토리텔링의 세계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그의 Augmented Shadow 시리즈를 통해 특정 소수만이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아닌, '모두'를 위한 증강된 예술세계의 미래와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모든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어려움 없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전시의 부대행사로는 7월 중순, 문준용 작가의 Augmented Shadow 작품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작가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콩·들깨·옥수수 등... 1년간 씨앗 받는 농부의 모습

화순 배경 다큐 '씨앗의 시간' 17일 광주독립영화관 시사회

화순의 한 촌부가 콩과 들깨 등의 씨앗을 받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2022년 제14회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대상 수상에 이어 '2023년 제20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한국경쟁부문에 초청된 설수안 감독의 '씨앗의 시간'이다.

이 영화는 오는 17일 오후 4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시사회를 갖는다.

'씨앗의 시간'은 현대인이 농치기 쉬운 입춘, 우수, 경칩... 등 24절기 속으로 끌고 간다.

영화에는 수십년 동안 콩과 호박, 들깨, 옥수수 등의 씨앗을 받고 심어온 농부들이 등장한다. 허리가 굽어 땅에 가까워진 몸으로 농사를 짓는 늙은 농부, 이들에게서 받은 씨앗을 심는 젊은 농부, 그리고 열었다 녹는 땅의 풍경을 카메라는 가만



히 지켜본다.

특히 KTX와 초고층 아파트, 태양광발전 등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 급변하는 농촌의 환경 속에서 농부들의 노동은 지속되는 씨앗의 시간이 지닌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촬영은 화순군 청풍면 세정리에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년간 진행됐

다. 마을에 사는 장귀덕 농부가 콩과 들깨, 옥수수 등을 키우기 위한 준비과정과 수확, 그리고 다시 씨앗을 받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수십년간 지속해 온 힘든 농사, 그로 인해 변한 몸, 그 변한 몸으로 또 다시 농사일을 지속하며 씨앗을 지키는 모습이다.

또 마을 주민들의 모습과 씨앗을 얻는 과정에 얽힌 이야기, 새들의 소리로 작품 재배 시기 등을 분간하는 감각 등이 영상에 담겨 눈길을 끈다.

설수안 감독은 "토종 씨앗을 지켜온 것은 생물학적 지식이나 커다란 사명감이 아닌, 자연을 대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시간과 함께 움직이는 노동"이라면서 "씨앗의 소멸 뒤에는 삶과 직결된 노동의 오랜 세월이 걸친 폼파, 그 노동을 토대로 이뤄졌던 공동체의 소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노동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또는 되살리려 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 그 존재를 다시 상기시키려 했다"고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도선인 기자



'폭 하고 들어갔다가 푸 하고 솟아오르는' 공연 모습. ACC 제공

영유아 위한 연극 '폭 하고 들어갔다가...'

16~18일 ACC 어린이극장 오감 자극하는 생애 첫 연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생후 10~18개월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공연 '폭 하고 들어갔다가 푸 하고 솟아오르는'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ACC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공연은 여우비 내리는 여름 한 낮의 일상이 꿈처럼 열리는 순간을 배우들의 움직임과 클래식 기타 연주로 보여준다. 50여분 간 진행되는 공연시간 동안 아이들은 극장의 냄새와 소리, 조명, 낯선 사람들에게 적응하고 다양한 감각적 요소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생애 첫 연극 관람의 경험을 갖게 된다.

이번 공연은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연구소의 영유아극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창작됐다. 공연 제작은 문화예술교육 및 연극놀이 전문가인 양혜정 연출을 중심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 '티키와 타카'가 맡았다.

배우와 음악감독 등 어린이·청소년극 창작자들은 지난 2020년부터 36개월 이하 아기 관객과 만나는 연극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작으로 영·유아극 포럼, 시범공연 등의 과정을 거쳐 작품을 최종 완성했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ACC 어린이극장은 영유아부터 노인, 장애, 비장애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모두를 위한 극장'을 목표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며 "아이들이 낯선 극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발견하는 것 또한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공연은 16일부터 18일까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총 6회 진행되며, 관람권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ACC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활동을 제공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이다. 도선인 기자

미디어 아티스트 박상화 특별전 '환상자연'

드영미술관 7월30일까지 가상의 디지털 자연 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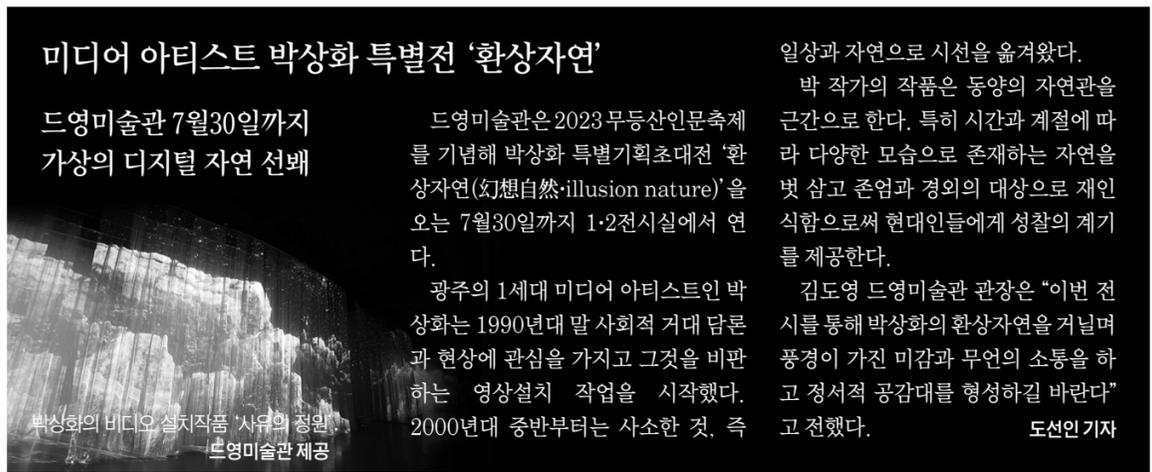
드영미술관은 2023 무등산인문축제를 기념해 박상화 특별기획초대전 '환상자연(幻想自然:illusion nature)'을 오는 7월30일까지 1·2전시실에서 연다.

광주의 1세대 미디어 아티스트인 박상화는 1990년대 말 사회적 거대 담론과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는 영상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사소한 것, 즉

일상과 자연으로 시선을 옮겨왔다.

박 작가의 작품은 동양의 자연관을 근간으로 한다. 특히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연을 벗 삼고 존엄과 경외의 대상으로 재인식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청철의 계기를 제공한다.

김도영 드영미술관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박상화의 환상자연을 거닐며 풍경이 가진 미감과 무언의 소통을 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선인 기자



박상화의 비디오 설치작품 '사유의 정원' 드영미술관 제공